



제2회 환자안전일 기념행사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 ... 의료기관 폭언·폭행 근절

보건복지부는 제2회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 주제로 5월 29일 열었다. 정부는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故) 정종현 군의 사망일(5월 29일)을 환자안전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환자안전법은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환자안전법 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신경림 국회의원(현 대한간호협회장)과 오제세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통과됐으며, 2015년 1월

28일자로 공포됐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보건 의료인과의 환자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강조됐다. 이상일 울산대 교수가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간호사 등이 환자안전 관련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UCC,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또한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추진위는 환자안전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해 환자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직됐다. 국회의원, 정부기관, 보건 의료인·보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노동계·시민·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내부 운영 방침 및 추진방향 등을 마련하고,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각종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인과 환자 간의 배려와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선진국 수준의 환자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자안전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인식 개선 등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년)을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다.

2019년 주요사업으로 △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 사례분석위원회 운영 △보건의료기관 및 직원 현장지침 운영 및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 보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WHO, 게임중독에 질병코드 부여 결정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에 대해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하에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 협의체가 구성된다.

WHO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개최한 제72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총회 마지막날인 5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게임이용 장애에 '6C51'코드를 부여했으며, 이는 정신·행동·신경 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항목에 속한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 가능하므로 2026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5월 28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joo@

부산시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취업박람회' 개최

'2019 병원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5월 30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간호사회 주최,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부산·울산권역센터와 벡스코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부산시에서 후원했다.

취업박람회는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지역 우수병원 48곳이 참여했고,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및 유휴간호사 1146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구직자 대상으로 채용상담을 실시했으며, 총 7531건의 면접이 이뤄졌다. 간호부서장들이 면접관 역할을 한 모의면접, 선배간호사들이 멘토로 나선 진로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오거돈 부산시장이 참석해 각 부서를 방문하며 간호부서장들을 격려했다.

간호부서장들은 "영남권의 졸업예정자 간호대학생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 취업박람회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진로 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진로교육'도 벡스코 3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간호대학생 260명이 참가했다.

황순연 부산시간호사회장은 "이번 취업박람회가 부산지역 병원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유휴간호사 및 졸업예정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ilee@



간호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진로 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진로교육'도 벡스코 3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간호대학생 260명이 참가했다.

황순연 부산시간호사회장은 "이번 취업박람회가 부산지역 병원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유휴간호사 및 졸업예정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ilee@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

우리나라 장애인 권리 보장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국가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건복지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선택의정서 포함)과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국가보고서에서는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2019. 7.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시행(2017. 5.)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신속 공공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의무화(2015. 1.) 등을 주요성과로 제시했다.

기준에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선택의정서 비준, 성년후

견제 개선, 협약 제25조 e항(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 차별 금지) 유보 철회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국제기구 심사 준비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포용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의 국가보고서 심사는 2020년 1월 예정이며, 그 전까지 변화된 상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철저한 준비를 계획한다.

최유주 기자 yjchoi@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도입 대비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7월 이후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환자지원제도 운영관련 실무교육'을 5월 한 달 동안 7차에 걸쳐 실시했다.

요양병원 임원환자 담당수는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요구들이 상존해 요양병원 체류를 선호해왔다. 또한 현재의 요양병원에는 치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시키는 기전이나 연계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환자는 환자지원팀으로부터 퇴원준비를 위한 건강 및 사회서비스 욕구평가와 퇴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지원팀은 환자가 입원 시

부터 퇴원까지 환자의 지역복지 지원을 위한 환자평가, 지역자원 연계 활동 등을 실시하게 된다. 요양병원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제도시행을 대비해 환자지원팀에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한 실무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퇴원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은 커뮤니티케어의 중요한 부분이다.

건보공단은 요양병원에서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전산 연계해 요양병원의 퇴원계획 작성 및 지역자원 연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oo@



와타나베미세라, 장지홍, 이순교, 정명숙, 이승희

환자안전 기여 ... 간호사 5명 장관 표창

환자안전일을 맞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한 간호사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5월 29일 열린 제2회 환자안전일 기념행사에서 진행됐다.

○...와타나베미세라 에이치플러스양자병원 적정진료실 QPS 팀장은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문화 정착 및 활성화 활동을 추진한 리더로서, 활동사례를 관련 학회에 공유해 3년 연속 연재 발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환자

안전에 공헌했다. ○...장지홍 국군양주병원 내과 간호과장은 군병원 환자안전 문화 조성, 환자안전 전담인력 편성, 환자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등 군의료시설의 환자안전제도 정착 및 환자안전 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순교 서울아산병원 AGS평가팀장은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환자안전 위킹그룹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한

환자안전제도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국QI간호사회 및 한국의료정보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다. ○...정명숙 아주대병원 적정진료관리 팀장은 한국QI간호사회 교육이사로 다양한 환자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활발한 강사활동을 통해 환자안전법 정착에 기여했다. ○...이승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지원팀 연구원은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 환자안전 조지·예산, 환자안전 종합계획 수립 지원, 사업추진 관리 등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주혜진 기자 hjoo@



한국-노르웨이 수교 60주년 특별사진전

6.25전쟁 파견된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활약상 전시

주한노르웨이대사관은 전쟁기념관과 함께 '6·25전쟁으로 맺어진 영원한 우정, 노르매쉬(NORMASH)' 특별사진전을 열고 있다.

이번 특별사진전은 한국과 노르웨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했던 노르웨이 육군 이동외과병원 '노르매쉬'의 활약상이 담긴 사진 60점, 노르웨이 신문 및 정부 문서 6점, 당시 사용했던 수술기구세트 등 유물 30점 등으로 구성됐다. 간호사의 노르매쉬 파견계약서와 유품도 전시됐다.

사진전 개막식은 5월 28일 열렸다. 박삼득 전쟁기념관 관장은 환영사를 통해 "노르웨이는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의료인력과 의료물자를 지원해 큰 도움

을 줬다"면서 "이번 사진전이 따뜻한 인솔과 사랑을 펼치던 노르매쉬의 활약상을 되새기고, 두 나라의 우정이 더욱 굳건해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데 수올베르그(Frode Solberg) 주한노르웨이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양국 수교 이전인 1951년, 전쟁을 겪고 있는 한국을 돕기 위해 이동외과병원 노르매쉬 의료진이 파견됐다"면서 "참혹하고 인간의 최악의 모습을 드러내는 전쟁 중에도 용기, 연민, 우정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피어나며, 이 같은 특별한 이야기와 한국과 노르웨이의 끈끈한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르매쉬는 최전방에서 활동하며 9만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면서

한국과 노르웨이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 개막식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참석했다.

"파견된 노르웨이인들은 귀국 후에도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겼고,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수올베르그 대사는 "이번에 전시된 많은 사진들은 노르매쉬의 여의사 잉에르 슐스타드 박사가 직접 촬영해 소장했던 것"이라며 "그녀는 같이 일했던 간호사들과 함께 여성을 위해서도 많은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르매쉬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 노르웨이인들, 한국의 참전용사들과 모든 유엔 참전국 용사들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그분들의 활약과 헌신은 한국과 노르웨이 간의 협력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오늘날 한국은 노르웨이의 중요한 파트너국이 됐으며, 그분들의 공헌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규백 국회 국방위원회(한국-노르웨이 국회의원친선협회 이사)는 "특별사진전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하며,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협력과 우정을 기원한다"면서 견해를 밝혔다. 테이프 커팅식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김윤주 국군간호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장(대령)이 참여했다.

【관람안내】 특별사진전은 6월 30일까지 서울 전쟁기념관 3층 유엔참전실에서 열린다. 관람료 무료.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이동외과병원 '노르매쉬'

노르웨이 간호사 파견돼 최전방에서 부상병 치료

노르웨이는 6·25전쟁 당시 유엔의 의료지원부대를 요청하자 육군 이동외과병원 노르매쉬(Norwegian Mobile Army Surgical Hospital)를 파견했다.

의무 및 행정요원 83명으로 구성된 60병상 규모의 노르매쉬는 1951년 7월 19일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1954년 11월 10일까지 한국에 남아 활약했으며, 9만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처음에는 의정부에 위치했으며 이후 좀더 북쪽으로 이동해 동두천에 자리를 잡았다. 전쟁기간 동안 623명을 파견했다.

노르매쉬의 환자들은 전장에서 부상 당해 이송된 군인들이었다. 환자들은 구급차나 헬리콥터로 이송됐는데, 이는 당시 혁신이 가까웠다. 환자들은 3일 동안 머물다가 새로 오는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후송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병들이 끊임없이 병원으로 도착하는 아주 바쁜 날에는 하루에 64건에 달하는 수술이 이뤄지기도 했다.

군병원이었지만 정전 이후에는 많은 한국 국민들을 진료하기도 했다. 정전 이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한국 정부가 함께 세운 국립의료원(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958년부터 1968년까지 139명의 노르웨이인들이 근무했다.



서울시 병원에서 온 간호사들이 노르매쉬 여의사 잉에르 슐스타드 박사를 만나고 있다. [사진=주한노르웨이대사관]



1958~1968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스칸디나비아 의료진이 근무했다. [사진=주한노르웨이대사관]



특별사진전에 전시된 노르매쉬 간호사의 파견계약서와 유품.